

# 디지털전자산업 ‘무역구제지원센터’ 발족

## 디지털전자산업 불공정 무역피해 공정대처

본회는 3월 21일 오전 11시 전자회관에서 허범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감렬 본회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전자산업 무역구제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총수출의 40%를 점할 정도로 국내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전자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산업별 전문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무역 구제지원센터』를 발족하였으며, 무역구제 전담 요원도 신규 배치하였다.

특히, 본회는 디지털전자산업 무역구제제도 지원센터의 출범과 함께 기존의 특허지원센터, PL센터와 관련업무를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전자메이커들의 불공정 무역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허범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산업별 전문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전자회관에서 『무역구제지원센터』 개소식을 거행한 것에 대해 축사를 하면서, 전자IT전문단체로서 국가의 무역구제(Trade Remedy)정책에 능동적으로 부응한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지털전자산업』에서 불공정 무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기를 당부 했다.

이감렬 본회 CEO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자 회관에서 『무역구제지원센터』 개소식을 거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총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전자산업이 국가산업의 핵심 성장엔진으로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들의 무역피해에 대해 구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디지털전자산업 무역구제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전자IT산업의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무역구제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덤핑수입,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과 급격한 수입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디지털전자산업 무역 구제지원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전담 요원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무역위원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 기업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44.3%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덤핑 등으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인 무역구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족식에 앞서 “무역구제제도 소개 및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 심동섭 조사총괄과장이 참석자를 대상으로 심층 설명회를 가졌으며, “무역구제제도 활용 성공사례 동영상”도 상영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무역구제제도를 재조명하고 향후 디지털전자산업의 공정한 - 무역환경 조성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